

발신 :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조직위원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IT 담당

날짜 : 2014년 6월 27일(금)

제목 :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담당 : 오병일 (진보네트워킹센터, antiropy@gmail.com, 02-774-4551)

이민애 (네이버, minaee.lee@naver.com, 031-784-4731)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다음과 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 일시 : 2014년 7월 4일(금) 오전 10시 - 6시

- 장소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CAMP 6층 다목적홀 (<http://dcamp.kr/about#dc-map>)

- 주제 : 참여와 협력을 통한 인터넷 거버넌스

- 주최 :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조직위원회

- 주관 : <시민사회> 경실련,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킹센터, CCKorea, 망중립성이용자포럼, 프라이버시 워킹그룹 <산업계> 네이버, 다음, 가비아, (사)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 <학계> Cyber Commons Korea, 인터넷정보학회

- 후원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CAMP

- 홈페이지 : <http://igf.or.kr>

* 이 행사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원격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 이 행사는 국가적 차원의 인터넷거버넌스포럼으로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해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 전길남 교수님께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에 대해서 기조 연설을 하실 예정입니다.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개방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인터넷의 운영과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세계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 역시 이러한 원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포럼도 이에 기반하여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조 연설 후에는 3개의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 3월 미국 상무성의 발표로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루트서버 감독권한의 이양(IANA function transition)과 관련된 이슈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어때야 하는지 토론합니다. 이후, 기존의 인터넷 공공정책 결정 과정을 평가하고, 한국에서 다자간의 공공정책 논의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토론할 예정입니다.

5. 참고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 (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지난 2005년 개최된 정보사회세계 정상회의(WSSIS)의 결과 문서인 튀니스 어젠더(Tunis Agenda)의 72항에 따라 2006년 아테네에서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발리 IGF에 이르기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14년 9월 2일-5일에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9차 IGF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6. 많은 참여와 보도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참여와 협력을 통한 인터넷 거버넌스”

1. 배경 및 취지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지난 2005년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 SIS)의 결과 문서인 튀니스 어젠더(Tunis Agenda)의 72항에 따라 2006년 아테네에서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발리 IGF에 이르기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14년 9월 2일-5일에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9차 IGF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IGF는 8차에 걸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인터넷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며, 개발도상국이나 새로운 참여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IGF는 단순히 정책토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인터넷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해 ‘권고’ 등 보다 구체적인 결과물을 생산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24일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넷문디알(NetMundial) 회의(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에서도 IGF의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인터넷거버넌스포럼 홈페이지 : <http://www.intgovforum.org/>

아시아태평양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세계 IGF와 병행하여, 각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도 IGF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IGF(AprIGF), 아프리카 IGF(African IGF), 유럽 IGF(EuroDIG) 등이 그것입니다. 러시아, 독일, 캐나다, 케냐, 말레이시아 등 각 국에서도 국가 차원의 IGF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지난 2010년 홍콩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IGF를 시작으로, 지난 2013년에는 서울에서 4차 아태지역 IGF가 개최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8월 3-6일, 인도 델리에서 5차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 지역 단위의 IGF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정책 토론과 역량강화라는 IGF의 의미를 각 국가, 지역 단위로 확대하고, 각 국가나 지역의 고유한 이슈들 발굴하며, 국가, 지역과 세계적 인터넷 거버넌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태평양 인터넷거버넌스포럼 홈페이지 : <http://www.rigf.asia/>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IGF-kr)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주요 주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태지역 IGF 및 세계 IGF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이해당사자들이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행사 개요

- 일시 : 2014년 7월 4일(금) 오전 10시 - 6시
- 장소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CAMP 6층 다목적홀 (<http://dcamp.kr/about#dc-map>)
- 주제 : 참여와 협력을 통한 인터넷 거버넌스
- 주최 :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조직위원회
- 주관 : <시민사회> 경실련,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CCKorea, 망중립성이용자포럼, 프라이버시 워킹그룹 <산업계> 네이버, 다음, 가비아, (사)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 <학계> Cyber Commons Korea, 인터넷정보학회
- 후원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CAMP
- 홈페이지 : <http://igf.or.kr>

* 이 행사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원격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조직위원회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의 준비를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조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동만(KAIST, KIGA 주소인프라분과), 이영음(방송통신대, KIGA 주소인프라분과), 김국(서경대, KIGA 주소인프라분과), 한선영(건국대, KIGA 주소인프라분과), 김경석(부산대, KIGA 주소인프라분과), 정찬모(인하대, KIGA 주소인프라분과), 김기중(변호사, KIGA 주소인프라분과), 김인숙(한국소비자원, KIGA 주소인프라분과), 박성훈(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진현욱(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철한(경실련), 전용희(오픈넷), 이종희(진보넷), 윤종수(CC Korea), 오병일(정보공유연대 IPLeft), 오길영(망중립성이용자포럼), 양홍석(프라이버시 워킹그룹), 한중호(네이버), 이병선(다음), 이민수(가비아), 안창윤((사)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 이호복(가비아, (사)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 전길남(Cyber Commons Korea), 김보라미(인터넷정보학회)

3. 프로그램

9:30 - 10:00 참가자 등록

10:00 - 10:30 개회식- 각 계 인사말

10:30-10:50 기조 강연 - 전길남(KAIST 교수, Cybercommons Korea)

- 주제 : Multi-stakeholder Model - under development

11:00 - 12:30 [워크샵 1]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 및 인터넷할당번호관리기관(IANA) 국제화 논의의 쟁점과 한국의 입장

- 사회 : 이영음 (방송통신대 교수)

- 발표 : 이동만 (KAIST 교수)

- 주요 쟁점

ICANN 국제화, IANA transition 관련 국제동향 및 쟁점 소개

ICANN 국제화, IANA transition 관련 한국의 입장 논의

12:30 - 1:30 점심식사 (간단한 식사 제공)

1:30 - 3:00 [워크샵 2] 기존의 인터넷 공공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평가

- 사회 : 윤종수 (변호사, CC Korea)

- 주요 쟁점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Multi-stakeholder model)의 의미와 한계

인터넷 주소정책 및 다른 인터넷 공공정책의 수립 과정과 관련하여 기존 국내 관행에 대한 평가

3:00 - 3:30 휴식

3:30 - 5:00 [워크샵 3] 국내 다자간 인터넷 정책 협의 플랫폼 구축 방안

- 사회 : 전용휘 (오픈넷)

- 발표 : 김보라미 (변호사, 인터넷정보학회)

- 주요 쟁점

국내 다자간 인터넷정책 협의 플랫폼의 필요성

국내 다자간 인터넷정책 협의 플랫폼 운영원칙

이해당사자 그룹(stakeholder)의 구분과 역할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의 의미, 역할, 운영방안